



문화매일신문



제1572호

2024/4/25/Thu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경기도, 예능형 정책홍보 방송 'SML 경기' 새롭게 선보여 ... 25일 첫 방송

신규 도정홍보 방송 'SML 경기', 시청자 중심의 친근하고 재밌는 예능형 콘텐츠 선보여

경기도의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예능과 정책홍보를 결합한 신규 프로그램 'SML(Special Moment in Life) 경기'가 오는 25일 오후 6시 첫 방송된다.

'SML 경기'는 노래와 대담이 어우러진 일종의 뮤직토크쇼로, 기존의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웃음을 유발하는 콩트 세계관 속 상황과 대사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은 콩트와 패러디로 유명한 'SNL 코리아'를 참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인디뮤지션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방송 출연과 공연 기회 지원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도정 가치인 '기회'를 다방면으로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메인 진행은 개그맨 정태호가 맡았다. 정태호는 한때 스타를 꿈꿨으나 현재는 기획자로 변신해 스타성을 가진 신규 뮤지션을 물색 중인 '뽕하고 해 뜰 엔터테인먼트(이하 해뜰엔터)'의 정 사장 캐릭터를 맡았다. 서브 진행으로는 아이돌그룹 '아이칠린'의 리더인 이지아 해뜰엔터의 유일무이한 만능 직원 역할을 맡았다. 뮤지션과 경기도를 소개하고 소속 아티스트 면접과 사무실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역할로 프로그램 전반 진행을 보조한다.



방송은 매주 목요일 18시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럽, 구글팟캐스트 등 경기도 팟캐스트 채널에서도 들을 수 있다. 단, 팟캐스트 방송은 금요일 0시에 열

린다.

1~4회 게스트로는 신유미, 스킱잭, 태우(TAEWOO), 신해솔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현재 거주 등 도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디 뮤지션이다. 여러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기회를 지원한다는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방송 출연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살거나 연고가 있는 뮤지션은 사연과 공연 영상 등을 전자우편(smlgg@naver.com)으로 보내 직접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정규방송뿐만 아니라 투표, 연말 콘서트 등을 통해 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각 회차에 소개된 아티스트들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연말에 개최될 '기회콘서트(가칭)' 공연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된다. 도민 또한 아티스트들을 응원하고, 투표 과정에 참여해 연말 콘서트 라인업을 직접 결정하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예능형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정책홍보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SML 경기'가 성공하면 정책홍보의 새 장을 열 것"이라며 "SML(Special Moment in Life)이라는 이름처럼 경기도 예술인들과 시청자, 도민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어르신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 체계 재건음

시스템 구축지역 특화 서비스 발굴 등 전문가 논의

전라남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어르신이 사는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여수시를 포함한 전국 12개 시군구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26년도부터는 전국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어르신 통합돌봄 체계의 전 시군 도입·운영을 위해 23일 여수시 시범사업 추진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기본서비스에 더하는 특화된 돌봄서비스 발굴 ▲서비스 대상자 심사·선정 체계 운영 ▲통합돌봄 종사자 육성 등 종합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여수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순천, 담양, 영광 3개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 상황과 광역화 방안을 협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남형 어르신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정부의 통합돌봄 대상자 정보공유 시스템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도와 시군별 통합돌봄지원센터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기본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를 융합한 전남형 어르신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전 시군에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형 모델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들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방문간호 ▲물리치료사 방문지도 ▲만성질환 건강지원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목욕 지원 ▲주야간 보호 ▲식사 지원 등을 기본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전라남도 명품 복지사업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24시간 위기 지원콜(120), 전남형 치매돌봄체, 은둔형 외톨이 및 고독사 예방사업 등을 특화형 서비스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갈아도 서비스 제공 영역이 서로 달라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의 사업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통합돌봄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자별 여건에 맞게 더 체계적이고 더 촘촘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올해도 이른 추석, 경북도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경계해야

경북농업기술원, 전년보다 12일 이른 추석에 미숙과 출하 우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올해 추석(9.17.)이 작년(9.29.)보다 12일 빨라 샤인머스켓 미숙과가 유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배 농가는 적정 착과량과 수

확기를 지켜 가격 하락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2022년 당시 농가들은 과다 결실과 이른 추석(9.10.)에 따른 미숙과 출하

로 샤인머스켓 가격 급락을 겪었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과 한뜻으로 '샤인머스켓 명성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주산 시군 품질관리 현장 순회 교육, 샤인머스켓 품평회, 기술원 육성 신품종 실증 재배 및 시범 수출 등을 추진해 포도 품질을 높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도 작년보다 추석이 이르며 더욱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포도를 생산해야 소비가 원활해지고 좋은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농가에서는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을 위해 불철 새순 솎기와 송이 솎이를 통해 원가지 1m당 13개 정도의 열매 가지를 두고, 1가지에 1송이(700g)

씩만 과실을 달아 10a(300평) 기준 2.5톤 이하로 생산해야 한다.

또한, 포도알 착입 후 120일 이상의 충분한 생육기간을 거쳐 적정 수확기에 도달한 과실을 수확해야 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포도 산업 발전과 가격 안정을 위해 포도 농가에서는 고품질의 샤인머스켓을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라며, "이른 추석을 맞아 적정 착과량과 수확 시기를 지켜 경북 샤인머스켓의 품질 유지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포도 면적은 8,203ha로 전국(14,655ha)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샤인머스켓은 4,878ha로 경북 도내 포도 품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경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국경을 넘는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에 앞장서다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에 국적·인종 차별 없도록 한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4, 국민의힘)은 제 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3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다문화 주민의 소방 안전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다문화 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최근 외국인 유치에 공들이는 만큼 다문화주민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다문화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5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남도·도의회, 진주시천 조각시설 최적화 방안 논의

진주시천 조각시설 최적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조성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23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주·사천 조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가연성페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조각시설 신·증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진주시와 사천시의 조각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 논의

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일수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소방목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폐기물 처리 과정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 제고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최적화 권역 내에서 폐기물처리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광역화·대형화·집적화)’ 추진이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유계현 경남도의회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인 진주·사천에 조각시설 광역화 추진 시, 국비 우선 반영과 상향(보조 비율 30→50%)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조각시설 고도화를 통한 오염물질 농도 저감 효과 등을 강조했다.

박정호 경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태희 경남도 환경 정책과장은 앞서 추진한 통영·고성,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 3건의 조각시설 광역화 추진사례를 공유하며,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조각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선 환경부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하는 조각시설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현 사천시의회 부의장은 조각 시설 광역화는 행정·재정적 이점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각시설 설치에 사천시와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은 조각시설 광역화에 대해 진주시는 신중한 입장이나,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방소멸 시대에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 삼자 간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우 하동군 자원순환담당관은 올해 준공 예정인 하동·남해 광역 조각 시설 설치사업을 소개하며, 과거 남해군과의 협의 과정, 하동군의 협의 절차, 지역 주민 설득 경험 등 조각시설 광역화 협의 체결 과정을 공유했다.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진주시에서 199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내동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06년까지는 사천시와 공동 사용했던 사례를 들며, 조각시설 광역화를 통해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주항공산업 발전 등 양 시의 공동번영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정호 경상대학교 교수는 “조각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남비현상이 불가피하므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라며, “이 자리가 진주시와 사천시의 조각 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의정부시의회,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개소식 참석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장,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센터 라운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정희 의장은 축사에서 “작년 8호점에 이어 이번 9호점이 개소되어, 돌봄이 필요한 초등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

의회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은 지난해 12월, 고산수자인 디에스티지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와 무상임대차 협약을 체결하고, 내부 시설 공사 및 위탁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마치고 이날 개소했다.

최만식/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 문제점 개선 위한 원장선임규정 등 제도적 보완 촉구

전남연구원, 원장 선임 기준 및 절차 보완, 정량평가 도입, 추천위원 자격 명문화, 이사회 부결시 후보자 검증절차 이행 등 개선키로 약속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3일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여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천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16일 개최했던 제 3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원장 선임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 확인을 받았으며, 당일 이후 전남연구원으로부터 추천위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 요구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기존의 규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원장 선임 과정이 추천위원회와 전남연구원 실무진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운영됐음이 확인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연구원장 선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심사 당일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방법 관련 추천기준을 결정하는 등 연구원 내부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원장 선임 규정 위반 등으로 이사회에서 부결됐는데, 원장 선임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원장 선임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추천위원들의 심사 점수 편차

가 지나치게 커 평가의 공정성이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위원 개인의 자의적 평가가 아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서류심사와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면접심사를 분리하여 2번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원장 선임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원장 선임규정에 추천위원 자격을 명문화할 것을 제

시했다. 아울러 원장 선임 절차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해 원장 선임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응모자 3인에게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연구원에서는 이번 원장 공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전남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연구원은 원장 공백 8개월 만에 원장 공모를 시작하여 2월 20일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공모한 3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대 박기영 교수가 최고점수를 받아 이사회에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그러나 이후 3월 6일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추천위에서 단수 추천된 ‘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이 부결되며 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후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원장 재공모를 실시했으며, 6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배/기자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의장,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23일 수원시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의장, 김기정 수원시의회의장, 윤원준 용인시의회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의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등 특례시의회의 권한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식 의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특례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의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특례시의회의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다음 제21차 정례회의는 오는 6월 17일,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광고: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가족, 연인, 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일! '토토즐 in 경기상상캠퍼스'

5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축제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에서 5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토토즐 in 경기상상캠퍼스'가 개최된다. 공연과 체험, 전시, 투어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5월 1주 차 토요일(5월 4일)을 시작으로 6월 3주 차 토요일(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예술나무숲 야외무대(구 사색의 동산)에서는 ▲오리지널 난버벌 퍼포먼스 '난타'와 ▲전통놀이 보존회의 '판술' 공연이 진행된다. 5월 4일, 11일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예술무대 산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퍼레이드를 만날 수 있다. 흥겨운 난타와 함께 6월 1일, 8일에는 한 여름밤의 숲에서 진행되는 ▲로맨틱 필름 콘서트 '연애의 정석'이 진행된다.

다채로운 공연 이외에도 이번 '토토즐 in 경기상상캠퍼스'에서는 신규 ▲탐험형 교육 프로그램 '달려라 상상메이트!'를 만날 수 있다. '달려라 상상메이트!'는 캐릭터 상상메이트와 함

께 경기상상캠퍼스를 거대한 게임판으로 활용하여 공간을 탐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간 곳곳을 탐험하면서 체험과 퀴즈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경기상상캠퍼스 누리집 및 지지씨멤버스에서 4월 22일(월) 오후 2시부터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청년동1981 앞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플리마켓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상실현실의 '도자 물레 체험', 디자인 스튜디오의 '나만의 디자인 작품 만들기 - 3D 프린팅 키링 만들기, 전자 인쇄 디자인 손수건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경기상상캠퍼스 문화예술 입주단체(그루버)가 운영하는 체험 부스에서 다양한 입주단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5월 4일과 11일에는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그로우 마켓)을 만나볼 수 있으며, 사전 참여 신청은 지지씨멤버스에서 할 수 있다.

또한, 5월 4일과 11일 ▲잔디마당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놀이

터가 진행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부터 초등학생들을 위한 대형 보드게임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 잔디마당은 가족과 연인을 위한 숲속 피크닉 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일반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입주단체 공간을 일부 개방하여 다양한 실내 전시가 진행된다. 생활 1980 1층에서는 ▲경기도의 도립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유산원의 대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팝업 전시가 진행된다. 숲 속 한켠에서는 3D프린터로 구현된 대형 메머드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위치한 뮤지엄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청년1981 1층에서는 입주단체(그루버)에 대한 소개 전시와 입주단체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가 상영될 예정이다. 경기상상캠퍼스에 입주한 단체가 궁금했다면 이번 팝업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경기상상캠퍼스 담당자는 "더 많은 도민들이 도심 속 숲인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예술과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백현중 경기도의원 좌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정책 대토론회 개최

재무건전성 확보 위해 경기도의 출자 확대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중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가 4월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중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특정부문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은 "국가의 정책기조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부채비율 상향

은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며, 국책사업 참여 지분율 조정과 출자금 확대 및 배당금 유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미래 매각 자산의 조기매각, 타공공기관과의 역할분담,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 리츠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분점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하며 "도에서는 기금법·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출자를 통한 GH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분조정을 통한 투자금 조정, 자산관리회사(AMC)를 이용한 부채비율 개선,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하고, 출자금 확대와 지방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제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GH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며 "또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야간·우천 시 차선 안보여... 차선 도색에 신기술·신공법 적용 필요"

경기도 지방도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한 관계자들 머리맞대...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22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지방도 차선도색 시인성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모두발언에서 김동영 의원은 "야간이나 우천 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차선 시인성 관련 불편과 안전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차선의 시인성 개선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정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돌출차선, 차선 테이프, 차선 끝부분에 자체 발광체인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도로표지판을 시범 설치해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교통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차선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신공법 적용의 검토와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성 위원장은 "서울시나 용인시 등

에서는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차선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기술·신공법 도입 단가가 조금 비싼 단점이 있지만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시각을 통해 수집되는데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거제약이 크게 발생한다"면서, "현재의 차선도색 방법은 시인성 저하, 조기 마모, 휘도 불량 등 반사성능과 내구성 저하 문제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어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교통안전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선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차선 반사성능 조사를 위한 장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관계 공무원은 "야간·우천 시 차선의 시인성 저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차선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 시행 사례를 검토하고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경기도 건설국 김기연 도로안전팀장, 경기도건설본부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이석민 품질시험팀장·윤상호 도로환경개선팀장·곽노홍 도로정비팀장 등 관계 공무원, 국토교통부 산하 협회인 (사)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성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지원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여주시, 2024년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제고사업 연시회 개최!

농업용 무인동력보트 공급으로 벼농사 생력화에 기여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4월 23일 북내면농촌지도자회원과 관계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용 무인동력보트 현장 연시회를 북내면 가정리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연시회는 고령화가 되고 있는 농업현실에서 생력화 기계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못자리 설치 및 관리 등 바쁜 영농철에도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으며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 됐다.

박중하 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추진한

농업용 무인동력보트 지원으로 북내면농촌지도자 회원들의 벼농사 재배가 생력화를 통해 한결 수월해 졌다고 말하며, 오늘 연시회를 통한 기계작동법 교육으로 고품질 여주쌀 안정생산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농촌지도자회 업무를 담당 하고있는 이화영 지도기획팀장은 농업용 무인전동보트는 초기·중기 제조제 살포시 노동력절감을 위해 도입된 기계로 일명 드론보트라고 불리며, 인력 살포시 ha당 2시간 내외였던 시간을 0.2시간으로 단축하여 노동력을 9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생력화 기계라고 설명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추진

화성시 치매안심센터가 관내 경로당을 전수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검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은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인지선별검사(CIST)는 간단한 인지 능력 평가 검사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시는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2년 뒤 재검사를 실시하고,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진단결과 치매로 최종 판정 받은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와 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오는 12월까지 각 경로당과 일정을 조율해 방문 치매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권역별 치매관리실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개별적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화성시치매안심센터는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치매검진과 찾아가는 사업장 치매검진 등도 추진해 적극적인 치매환자 발굴과 등록 관리를 통한 선제적인 치매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치매는 발견 시기에 따라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화성시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이천시,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 개막식 개최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 개막식이 26일 17시 이천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개막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국회의원과 관내 기관장·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이천시 인사와 경기도 30개시·군 시장 및 군수, 도·시의원, 국내교류도시 및 단체, 대학 총장, 군부대장 등 외부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은 식전공연, 공식행사, 축하공연으로 진행되며, 식전공연은 피아니스트 문재원, 소프라노 최정원, 테너 박희림의 클래식 및 뮤지컬 공연을 통해 성대하게 시작한다.

이어진 공식행사에서는 내빈소개

및 국민의례, 드론쇼, 개막선언 및 명장과 도예고 학생들의 물레시연 퍼포먼스, 이천시장의 환영사 및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贵宾들의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한다.

마지막 축하공연은 가수 폴킴과 예일리가 초대되어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펼치며 이날 개막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천도자기축제는 3년 연속 경기관광축제 지원 사업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명실상부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2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와 사기막골 도예촌에서 개최된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하원초교 학교돌봄터 5호점 문 열어...‘전국 최다 설치’

어린이 식당도 설치해 특화...밥간식제공

성남시는 중원구 금광1동 하원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 5호점을 설치하고, 4월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 3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충민 하원초등학교장, 학생과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교돌봄터는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설치 운영을 맡는 시설이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1~2학년생)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성남시는 2억6000만원(교육청비 9000만원 포함)을 들여 하원초교 체육관 건물 1층에 있는 328㎡ 공간을 리모델링해 학교돌봄터를 조성했다.

초등학생 6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3개의 프로그램실, 활동실, 교실 등을 갖췄다.

어린이 식당도 설치해 특화했다. 시설장과 돌봄 종사자 4명, 조리사 등이 이용 아동에게 밥과 간식을 챙겨주고, 생활교육, 숙제·독서 지도, 미술·요리·댄스 프로그램, 놀이 활동 등

을 지원한다.

학기 중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을 무료로 돌봐주며, 월 5만원(간식+석식)의 급식비만 내면 된다.

방학 중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급식비는 월 10만원(간식+중식+석식)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학교돌봄터에 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어린이 식당에선 영양과 균형을 갖춘 밥과 간식을 제공한다”면서 “엄마가 갖 지는 것처럼 맛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전국 최초로 판교대장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 1호점을 설치한 이후 수내초등학교에 2호점(2022.9), 오리초등학교에 3호점(2022.9), 청솔초등학교(2022.11)에 4호점, 이번 하원초등학교에 5호점(2024.4)을 설치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돌봄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 다함께돌봄센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곳을 설치 운영 중이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수원시 공동관’ 참가업체 모집

수원시 소재 반도체 패키징 소부장 기업 참가할 수 있어

수원시가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4)’에서 운영하는 수원시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25일부터 5월 9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4)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시회와 기업별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반도체 패키징 트렌드 포럼), 수출상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 라이징(떠오르는) 기업을 선발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 수원시 공동관을 운영한다. 수원시 소재 반도체 패키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이 참가할 수 있다.

공고일(4월 25일) 현재 수원시에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이 등록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25일~5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정오~오후 1시, 주말 제외) 수원시청 기업유치단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업의 안정성, 적극성, 차별성 등을 평가해 참가 기업을 선발한다. 선정 기업에는 홍보 부스(3m*3m) 2개와 기본 운영물품을 제공한다.

올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대만·미국·일본 등 반도체 산업 선진 국가의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대

만무역센터(TAITRA)·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산업전 참여 기업의 국외 진출을 지원한다.

수원시·경기도 공동주최로 지난해 8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P, 프로텍, 아주대, 성균관대, 평택대 등 91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276개 부스를 운영하며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장비·어셈블리 장비 등을 전시했다.

패키징(Packaging)은 반도체 칩을 전자기기에 맞는 형태로 제작하는 공정이다. 초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수원시 투자정책 홍보 부스, 관내 기업



(DK&C, SWC) 부스 등으로 수원시 공동관을 구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며 “수원시 공동관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신규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보정고 앞 정류장 등 76곳에 버스안내전광판 설치

국토교통부 공모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따라...국비·시비 14억원 투입

용인특례시는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흥구 보정고등학교 앞 정류장 등 지역 내 76곳에 버스안내전광판(BIT)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버스안내전광판은 실시간 버스 위치나 도착시간, 혼잡도 등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송출하는 장치다.

이번에 버스안내전광판을 설치한 곳은 처인구의 남사를 통한 정류장 등 29곳과 기흥구의 보정고등학교 정류장 등 25곳, 수지구의 고기2리·유원지입구 정류장 등 22곳이다.

대상지는 인근 도시를 오가는 광역노선을 중심으로 버스 이용 수요와 버스 운행 횟수, 대중교통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시는 각 정류소의 전광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인시청단교통센터 시스템에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고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흥구 산양마을 푸르지오, 초당마을3단지, 초당고 정류장 같은 기점이나 기점 인근 정류장엔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고도화 작업으로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버스 도착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게 됐다.

시의 이번 버스안내전광판 설치시는 지난 2023년 화성시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공모 선정으

로 확보한 국비 4억원에 시비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난해 6월 사업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 시민이 많은 도심부터 배차간격이 길어 버스 의존도가 높은 농촌까지 편리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버스안내전광판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첨단교통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광주시는 지난 20일 곤지암 도자공원 야외공연장에서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제8회 장애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으며, 방세환 광주시장, 안태준 국회의원 당선인,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1부는 광주시 장애인합창단, 장애인오케스트라, 한국무용, 장애인태권도 시범 등 식전 공연이 펼쳐졌다.

2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케이

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3부에서는 밴드공연 및 장애인 장기자랑이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중석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장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고 평등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모두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의료 기반 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 실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부담 가중...국도비지원 확대 필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도내 최다, 재정자립도는 33% 불과해 부담 가중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지원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 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 도시사업 시 부담률 70~80%...

재정여건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 필요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영기/기자

K-컬처의 중심 하남!, 'WOW 하남!' 버스킹 화려한 개막

시민 참여형 버스킹... 3,000여 명 관객 호응 이끌어 내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미사호수공원에서 'WOW 하남!' 버스킹 오픈공연으로 공연을 관람한 3,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버스킹 공연 스테이지 하남은 'K-컬처의 중심 하남'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시는 곳곳에 음악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리공연 활성화와 더욱 다채로운 장르와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버스킹의 문을 연 첫날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는 하남문화재단 꿈오케스트라 강사들로 이루어진 '꿈오케스트라'의 힘찬 브라스 공연으로 시작했다.

곧이어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노스텔직'이 무대에 올라 화려하고 신선한 연주를 선보였고, '뮤라인' 팀은 겨울의 왕국을 비롯한 3편의 뮤지컬 갈라쇼에서 다채로운 음악과 뛰어난 연기로 관객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댄스공연에서는 스트리트우먼파이터2에 출연했던 '마네린'과 시민 30명의 콜라보 공연은 모든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박수를 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이날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가수 초아의 K-POP 무대는 행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폐막공연으로 미사호수공원에서 열린 불꽃쇼가 큰 성공을 거뒀다. 이날 밤, 가수 초아와 관객들이 함께 외친

구호로 시작한 불꽃 퍼포먼스로 미사호수공원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했다.

둘째 날 버스킹에도 많은 관객들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지역 이날 공연은 '호림 태권도'와 '하남주니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채워졌다. 특히 '호림 태권도'의 힘찬 태권도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하남주니어 챔버' 오케스트라는 멋진 클래식 공연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관객 또한 무대로 나와 태권도 시범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클래식 연주곡에 맞추어 관객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모습이 보였다.

행사를 찾은 이현재 하남시장은 "글로벌 K-팝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문화예술도시 하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버스킹 공연 등을 기획·지원하게 됐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브랜드를 앞세워 K-스타워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오는 7월 14일까지 음악·무용·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미사 지역에서는 각각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공연이 펼쳐지며, 신장, 감일, 위례지역에서도 버스킹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광명시 하안2동 주민자치회, 2025년 마을사업 의제발굴 토론회 성공적으로 마무리

2025년 마을사업 의제 5건 도출, 주민총회로 확정 예정

광명시 하안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2일 '하안2동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의제 발굴 토론회'를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마을사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광명지회 정영희 회장을 퍼실리테이터로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년도 하안2동 마을사업 돌아보기 ▲마을 탐색 및 분

석 ▲브레인스토밍 ▲의제 발굴 ▲마을사업 계획서 작성 및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이 과정을 거쳐 총 다섯 개 사업을 도출해 냈다.

도출된 마을사업의제는 ▲탄소중립 시민교실 ▲담벼락 이야기 ▲청춘 배움 교실 ▲애완동물 물품 및 반려 식물 나눔사업 ▲세대별 태양광 패널 설치 시범사업 등으로 주민자치회 자체 검토

후 5월 주민총회 투표를 거쳐 내년도 마을사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오은주 하안2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마을의 가능성을 끌어올린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마을의 미래를 밝게 그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미 하안2동장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의제를 발굴한 것은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안2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5월 18일 2024년 하안2동 주민총회와 청렴산책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동일/기자

제27회 2024 광주왕일도자 컨퍼런스

2024. 5. 3. 금 — 5. 15. 수

곤지암도자공원 일원 13일간

개막식 5. 4. (토) 16:00

전남도 김영록 지사, 덴마크 오덴세항에서 목포신항 활성화 구상

연구개발 등 해상풍력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현장 시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현지 시간) 덴마크 오덴세 항을 방문, 오덴세 항만 사의 모든 디더리히 사업개발 수석 매니저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터빈공장을 시찰했다.

오덴세 항은 글로벌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다.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핀섬 동북쪽에 위치한 덴마크 최대 항만이다. 150개가 넘는 해상풍력 기업이 입주해 1천800여 종이 넘는 해상풍력 부품·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유럽 해상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의 약 20%가 오덴세 항에서 이뤄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오덴세 항에서 해상풍력의 연구개발-생산-조립-운송-설치-유지보수에 이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남도는 오덴세 항을 롤모델 삼아 목포신항을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조성할 계획으로, 목포신항 활성화



를 위해 A.P. 몰러-머스크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는 오덴세 항만에 위치한 세계 1위 터빈기업 베스타스

린도 공장을 시찰했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린도 공장은 약 4만㎡ 규모로 여러 모델을 생산한 베스타스 해상풍력 터빈의 핵심이자, 초도품 생산 시설이다.

김영록 지사는 "거대한 해상풍력 터빈이 생산·조립되는 과정을 직접 보니, 베스타스 해상풍력 터빈이 생산될 목포신항 터빈공장이 더욱 기대가 된다"며 "목포신항 터빈공장이 계획대로 적기에 준공되도록 인허가, 투자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공급망 밸류체인을 구축해 블루오션 산업을 육성, 서남권 전력산업인 조선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신산업으로 부흥한다는 목표다. 박종배/기자

'2024 향관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개막식 개최

4.26(금) 오후 7시,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2024 향관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식은 청소년 발레팀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축하, 아고라 순천 히스토리 영상 상영, 우수팀 개막공연, 피날레 합동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K-디즈니 순천'에 걸맞게 아고라 순천 공연팀이 준비한 애니메이션 OST 공연을 비롯하여 아고라 순천의 다양한 장르의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개막식 공연팀이 함께 준비한 피날레 공연을 선보이며 화합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 공연팀은 지난 3월 진행된 오디션에서 장르별 최고 득점을 받은 팀으로, 대중음악 4팀(비바살롱, 순천시 티준빅밴드, 신나라밴드, 오진용색스폰) 국악 2팀(가얏고아며, 전통예술단 예향), 무용·댄스 2팀(디딤예술단, 향

경하), 양악 2팀(조이플라잉상블, 소프라노 차유경)으로 구성됐다.

올해 아고라 순천 공연팀은 총 100팀이며 개막식 이후인 5월 4일부터 낙안읍성, 문화의 거리, 조례호수공원, 오천그린광장 등 순천시 일원에서 '아고라 순천, 예술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예술인, 그리고 관광객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2024 아고라 순천은 문화예술 사각지대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아고라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며, "순천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아고라 순천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예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준/기자



글로벌 문화축제로 거듭나는 남원시 제94회 춘향제, 한복 대여와 패션쇼로 전통문화 새로운 바람 일으키다

이를 위해 춘향제 기간 동안 한복대여소와 뷰티메이크업 부스, 그리고 한복패션쇼를 운영할 전문운영업체를 선정했다.

춘향제 기간 동안 3,000개 이상의 한복 및 장신구 대여 서비스를 전용 부스에서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뷰티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복패션쇼가 춘향제 기간 중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한복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통 의상도 선보여 글로벌 춘향제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춘향제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축제로서의 면모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 문화의 가치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춘향제 및 춘향무도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련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는 춘향제가 한복을 통해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남원시는 오는 제94회 춘향제가 "1년에 단 1주일 시민과 관객 모두가 마음껏 한복을 입고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춘향무도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 5월 2일부터 지급... 지역화폐 60만원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거쳐 지급 대상자 1만4361명 확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5월 2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한 명당 6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어민은 총 1만

4361명으로 읍·면·동 심의위원회와 나주시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20년 전라남도도와 도내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5년차를 맞아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공익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공익수당은 신청자 농어민이 신분증을 지참해 공익수당을 신청한 주소지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

령할 수 있다.

5월 31일 이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나주사랑상품권 지류, 모바일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의 경우 정책발행분으로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농협 마트를 포함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간을 농민 농어민을 위해 전라남도도와 추후 신청 기간을 별도 운영해 지급 적격자 누락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과 농촌공동체의 의미와 가

치를 다지는 역할과 함께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소소한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익수당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농어민공익수당 도입 첫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 2021년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 2022년 1만4041명에 84억2500만원, 2023년 1만4354명 86억1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영만/기자

강진군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반값 관광과 인구정책 중점 홍보로 강진 매력 알려

강진군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Y-FARM EXPO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과 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치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서 우수 농특산물 전시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1대1 맞춤 상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상담 홍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및 귀농교육 정보 안내를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에게 지역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초영농기술교육을 통해 강진군만의 특별한 인구정책 및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이번 박람회는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주택신축 지원사업, 강진품애(愛) 입주와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종합 안내 및 희망 분야별 교육과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해 귀농귀촌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추윤호/기자

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유전체 분석 및 우량 암소 장려금 지원 등 우량 암소 개량 박차

전남 함평군이 유전체 분석 사업 추진 및 우량 암소 장려금 지급 등 한우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한우 개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량 암소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량 암소 사육 농가를 비롯해 함평축협, 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에서 참석해 한우 혈통 개량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함평군은 작년 12월 말 대비 우량 암소가 16두 증가해 현재 109두이며, 우량 암소 사육 농가도 4개 농가가 더 증가한 32개 농가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량 혈통 개량 가속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우

량 암소 구입비 지원 사업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16개 농가 한우 1,333두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는 등,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향후 관내 우량 암소 개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안전영농 기원 통수식 개최

체감되는 기후변화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갑진(甲辰) 풍년 농사 기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영농기를 맞아 갑진년(甲辰年) 4월 17일 임회면에 위치한 용산저수지에서 안전한 영농과 풍년을 염원하는 통수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운영대의원을 비롯한 진도 내외빈 63명이 참석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기원하는 행사와 더불어 진도군 관내 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에 기록적인 강수량을 쏟아내어 영농기 전부터 기후위기·변화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시점에서 진도지사는 침수 방지를 위한 저수지 사전방류 및 철저한 양·배수장 시설물 가동점검 등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대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 환경을 대비한 물관리상황실을 운영하여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도군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영농에 불

편함이 없도록 수리시설 사전점검과 노후시설물 보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풍년 농사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유례없는 불철강우 등 직접 체감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튼튼한 식량주권 기반을 강화하고,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100년 역사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략목표 가치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진/기자



전북도, 청렴문화 확산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 교육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4급이상 간부급 대상 청렴리더십 교육



전북자치도가 4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3일

초청해 '청렴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청렴 실천 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견리 변호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의 저자로 차장검사, 검사장 등 수십년간의 법조경력에 물론 전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까지 역임하면서 행정업무 능력까지 두루 갖춘 인물이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중심의 교육과는 달리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및 부패의 정의, 원인,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실천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직접 경험해 온 다양한 사례에 비춰볼 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고위공직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청렴의지 확립을 위한 리더의 기본과 자질에 대해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다. 그 중심에는 간부공무원들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화합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전북자치도 구현을 위해 고위공직자 주도의 실천형 청렴정책 추진, 청력(靑力)업(up)책임관제를 통한 현장중심 청렴정책 추진,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청렴동행 사업 추진, 청렴도 및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 내·외부 청렴도를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청렴시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2024 서남권 뮤지엄페어... 뮤지엄 나이트 투어 참여자 모집

해가 지면 깨어나는 박물관, 불꺼진 박물관을 손전등 들고 관람

목포자연사박물관이 오는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간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024 서남권 뮤지엄페어 '뮤지엄 나이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뮤지엄 나이트 투어'는 야간에 불 꺼진 박물관 내에서 손전등으로 비추며 소장품을 관람하고,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면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뮤지엄페어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체험 쿠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목포자연사박물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총 240명을 신청한다.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자연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똑같은 공간이지만 야간에 관람하는 박물관은 관람객에게 신선함과 재미를 줄 것이다"면서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소장품에 대해 색다르고 깊이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서남권 뮤지엄페어는 오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서남권 박물관·미술관 7개 기관이 참여해 뮤지엄 그라운드 등 5종 20개 체험프로그램이 목포자연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목포자연사박물관 일원에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37일간 대형 공룡풍선(별론)과 야간조명이 설치돼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박물관을 밝게 비출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완도군, NH농협 완도군지부로부터 제휴카드 적립 기금 전달받아

약 6천여 만 원, 군민 복지 증진·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비 사용

완도군은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로부터 2023년도 제휴카드 사용 적립 기금 약 6,010만 원을 전달받았다. 기금은 완도군과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와와의 협약에 의해 완도군 법인카드와 보조금 카드, 완도군청 복지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윤액의 0.1~1.0%를 포인트로 적립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달 기금 5,066만 원

대비 약 944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카드 사용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군 세수 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군은 전달받은 기금을 올해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대웅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을 펼치겠다"면서 "아울러 완도군에서 미래 백년대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과 군민의 실의 증진에 힘쓰고 있는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달받은 기금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영율/기자



탄소중립 실천 깨끗한 구레 만들기

4월22일 법정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기념

구례군새마을회가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을 맞아 4월 22일 지역 내 도로변(군청~공설운동장) 2km 구간에서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줄기를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은 참석해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고 청결한 구례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가지 일대와 도로변에 불법투기 된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청소했다. 구례군 새마을회 정연숙 회장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무단투기 쓰레기

가 많아지고 있는데 근면·자조·협동 새마을정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후와 환경, 지역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순호 군수는 "깨끗한 구레 만들기 새마을회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 감사하다"며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어들고 우리 구레가 더욱 청결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보성군, '보성녹차' 2024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수상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지역명품브랜드 부문 10년 연속 선정

보성군은 '보성녹차'가 '2024년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 지역명품브랜드 부문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협회 주관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보성녹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은 한국을 대표하고 시장을 선도하며 명성을 쌓은 제품에 대해 브랜드별 전략, 체계, 관

리에 관한 전문가 경영 성과 평가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다. 보성녹차는 2002년 농산물분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되어 차의 역사성과 품질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보성군은 2009년부터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미국(USDA), 유럽(EU), 일본(JAS)에서 국제유기인증 획득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상부한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또한, 녹차와 연계한 기업유치,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2012년, 2014년, 2019년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고, 2018년에는 '보성전통차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되어 역사성과 우수성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올해 싱가포르에 블렌딩 티 3종 6,000개, 아일랜드에 가루녹차 1.8톤을 수출한 바 있다."라며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명가명



품으로 인정받은 보성녹차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명가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경쟁력도 갖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피어나다 남원

춘향, COLOR 愛 반하다!

제94회 춘향제 남원

춘향제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

경북도, 2024년 정신건강 심포지엄 개최



경북도는 23일 경주 황룡원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정신 분야 전문가와 상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상북도 정신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건강 사업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희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사업부장의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정신건강·자살 예방 사업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책개발 논의

현황, 경상북도 정신건강 현황으로 보는 정책 제언을 주제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강희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윤성용 도 보건정책과장, 김희숙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석현 경상북도정신재활시설협회장, 신성만 한동대학교 심리 학교교수와 함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정신건강사업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와 기존 정신건강 증진 체계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복지 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보건 기관 시설 확보, 지역사회 내 정신 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만의 사업이 아닌, 회복과 사회복귀, 지역사회 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2022년 외로움대책팀을 만들어 1인 가구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자살률 전국 6위의 불명예를 벗고자 외로움 극복과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G-공감지기 양성, 대화기부 운동 확산 등 다양한 외로움 대책 사업을 추진한다.

윤성용 보건정책과장은 "경북도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정신 응급 대응과 정신 재활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된 조건과 현황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 제11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 참여기업 모집

5. 17.(금)~19.(일) 3일간 엑스코에서 영호남권 최대 뷰티박람회인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

대구광역시 지역 뷰티기업의 내수, 수출 등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엑스코 서관에서 개최되는 영호남권 최대 뷰티박람회인 '2024 제11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중 비수도권의 지역 유망전시회에 지난 3월 선정됐으며,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의 메이크오버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수출 초보·유망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또는 수출 성과 제고를 돕고자 KOTRA와 협업해 추진하는 '수출상담회'는 지난해 19개국 24개사에서 수출 우수 실적이 우수한 해외 바이어를 선별해 35개사로 확대하여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추진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기업이 원하는 바이어를 매칭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중국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알리바바 티몰글로벌 입점 설명회도 19일(일) 개최한다.

또한, CJ ENM, 롯데·현대 홈쇼핑,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글로벌이츠, 와디즈, 뉴코아 아울렛, 이랜드리테일 등 22개사 유통 바이어들로 구성된 구매상담회도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참가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시연하는 메이크오버쇼도 처음 기

획해, 참관객과 뷰티 제품 유통 바이어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하는 기업에 한해 당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신제품·신기술 설명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인구수 대비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뷰티서비스업 인프라를 활용해 박람회장 내에서 법정 위생교육, 대구광역시장배 미용·피부미용 경기대회, K-네일미용 경기대회를 동시 개최하고 있어,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하는 미용업계 영업주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 구매나 계약을 함으로써 뷰티기업과 지역 미용업계 간의 비즈니스 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지난해 뷰티 관련 3개 대학이 참여했던 '뷰티칼리자관'도 대폭 확대 올해 9개 대학이 참여해 퍼스널 컬러진단, 헤어·두피진단, 메이크업, 네일 체험 등 참관객들에게 다채로운 뷰티 체험을 제공한다.

올해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4 대구국제뷰티엑스포' 누리집 및 엑스코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박람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내실 있게 준비 중이니,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글로벌도시재단-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x울산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위한 마중물 마련

한국국제협력단(KOICA)-부산글로벌도시재단-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공동주최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는 24일 부산·울산지역 기업들의 국제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력해 '제2회 부산x울산 국제개발 조달 컨설팅'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컨설팅은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작괘원림에서 진행되며, 국제개발협력 조달 시장에 관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부산과 울산 소재 기업의 국내외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

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정보 제공,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시장 진출 방안 소개,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경험 공유, ▲1대1 기업 조달 컨설팅, ▲국제개발협력 홍보 부스 운영 등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전용우 대표이사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컨설팅이 지역 기업의 ODA 시장 진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재단은 오는 5월 10일 사상 공간 523에서 '부산글로벌도시재단 ODA 사업설명회(B-ODA 및업데이)'를 개최하며, 지역 청년 및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25th. April. 2024 13pm-17pm

국제개발조달! PICNIC으로 찾다

주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주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주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봉화군 소천면, 관내 여성단체와 하천변 환경정화활동 실시

오는 30일까지 여성단체 수해쓰레기 집중수거 실시

소천면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등 4개 여성단체와 함께 지난해 폭우로 적치된 수해쓰레기 및 무단투기쓰레기를 제거하는 하천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지난 22일 한

국여성농업인 연합회 22명을 시작으로 23일 새마을부녀회 17명, 24일 대한적십자여성봉사회 13명, 29일 생활개선회 3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봄철 농사준비와 파종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회원들은 관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화활

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고선리 하천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이인숙 한국여성농업인회장은 "이번 정화활동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선일/기자

일일현 소천면장은 "소천면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환경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한국여성농업인,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여성봉사회,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을 위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선일/기자



청송군, '지구의 날' 기념하여 탄소중립 실천

소등행사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 이벤트 추진

청송군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54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22일을 소등행사를 시작으로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이 운영된다.

청송군은 기후변화주간 요일별 기후행동을 제안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 월요일 기후행동의 날: 불필요한 조명은 소등해요!
- ▲ 화요일 기후행동의 날: 소중한 물은 아껴주세요!
- ▲ 수요일 자원순환의 날: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해요!
- ▲ 목요일 녹색소비의 날: 저탄소인증 농축산물 이용해요!
- ▲ 금요일 친환경이동의 날: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 이용해요!
- ▲ 토요일 생활실천의 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요!
- ▲ 일요일 생활실천의 날: 1회용 대신 머그컵과 텀러 사용해요!

또한 기후변화주간과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를 연계하여 탄소중립 홍보용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사업 등에서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아울러 청송군민이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의 가입자가 전국 소등행사 참여를 SNS로 인증하면 다화용 보냉백, 친환경 수세미를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소등행사 이벤트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주간에 많은 군민과 기관이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에 스며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캠페인 시행



영양군은 지난 23일 영양읍 동부리, 현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산불예방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이 주거지 근처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또는·발두령·쓰레기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원인을 예방하고자 교

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소각행위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영농 부산물 파쇄 신청안내와 봄철 산불조심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경북 산불의 51%가 임산자 실화 및 불법 소각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도입국 다양화로 안정적인 인력공급 추진

예천군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23일 라오스노동부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입국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수와 아누선 캄상사왓 라오스 노동고용국장을 비롯해 예천군의회 신항순 의원, 지역 농업조합장, 라오스노동사회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학동 군수를 비롯한 예천군 방문단은 협약식에 앞서 라오스노동부 풍싸이삭 인타랏 라오스 노동부 차관과 함께 계절근로자 파견과 농업분야 상호교류

를 위한 간담회를 가지며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공급 및 도입 국가의 다양화가 가능해졌다."며, "우수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유치를 예천군의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천군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우수한 라오스 노동자를 선별해 '24년 농가형 계절근로자'를 시범 운영한 후, '25년 지역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실시해 농가별 맞춤형 근로자 공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일/기자



경북도, 산림청·문경시와 산사태 재난대비 대피 훈련 실시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으로 도민의 안전확보

경상북도는 22일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회관에서 산림청, 문경시와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했다. 대피 훈련 장소인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명사고가 났던 산북면 가짜리 인근 마을로 54 가구 88명의 주민 중 안전 취약계층 주민이 6명이고, 산사태취약지역은 6곳이며 높은 산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림청·경상북도·문경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를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대피 등 실제 상황과 같이 진행했다. 문경시 경찰서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훈련에는 지역주민과 단체 등이 참여해 실제 대피경로와 대피소 확인, 주민 비상 연락망과 주민 대피 담



당자의 임무 역할 등을 확인했다. 또, 안전 취약계층 어르신, 민간 조력자에 의한 대피자, 대피거부자의 강제 대피 등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 대피체계도 살펴봤다. 대피 훈련이 끝난 후, 주민 대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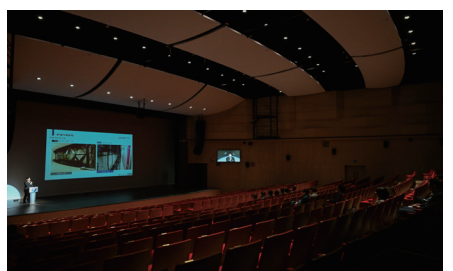
확인 방법, 대피자의 임의 복귀 제재, 대피 민간 조력자 확대 및 역할 강화 등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 이행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 후에는 경상북도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도 함께했다.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은 산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주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교육한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계기로 여름철 극한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이번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새 단장'

안전편의성은 물론 도내 최고 무대기계 구동부와 음향시설 갖춰
김광열 영덕군수, "더 나은 공연 환경을 통해 일선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중요성과 창의성으로 자기 개발하는 훌륭한 동기가 됐으면"해

영덕군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3일 준공 보고회를 열어 재개관을 위한 안전 점검을 마쳤다. 이날 보고회엔 김광열 영덕군수와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 11명이 참석해 개선 공사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무대 제어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예주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04년 다목적 공연장으로 개관해 다양한 공연은 물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활용됐지만, 개관 20년에 다다라 무대기계 제어장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개선과 보수의 필요성이 요구됐었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 2022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5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개선 공사를 진행해 공연장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무대기계 제어장치, 음향반사판, 음향장치, 냉난방 공조시설, 영상장치, 옥상방수 등 최고의 설비로 효과적인 무대 연출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사를 시행했다. 특히, 무대기계 구동부와 음향시설을 전면 교체해 경상북도 내 공연장 중 최

고의 시스템을 구축해 공연자가 최상의 무대 조건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관객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예주문화예술회관은 많은 분께 사랑받는 만큼 군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시설이기에 공간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개선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더 나은 공연 환경을 통해 일선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중요성과 창의성으로 자기 개발하는 훌륭한 동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롭게 단장한 예주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5일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영덕군 신춘음악회'에서 첫선을 보이게 된다. 장문화/기자



경주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접수 나서

공모형은 10억원 규모,
읍면동 계획형은 8월 중
읍면동 자체 시행

경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경주시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내년도 경주시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모형 △읍면동 계획형 △현장소통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시민 소득증대 및 편익향상, 생활불편 해소 등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시민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건당 2억원 이하(행사성 사업은 3천만원 미만/건)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규모는 10억원 정도다. 다만 특정단체 지원 또는 제품판매 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사업비 증액요구, 시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의 사업은 제외된다. 먼저 공모형에 접수하려면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거나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어 읍면동 계획형 접수는 오는 8월 중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소통형은 간담회, 공청회 등 현장소통을 통해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경주시는 제안된 공모사업을 타당성 검토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들이 더욱 쉽게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신청기간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 32억원(119건), 2023년 47억원(159건), 2024년 50억원(160건)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윤태용/기자



편성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들이 더욱 쉽게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신청기간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 32억원(119건), 2023년 47억원(159건), 2024년 50억원(160건)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윤태용/기자

자원봉사로 시작하는 행복한 영천 만들기

경북행복마을 58호·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 32호 탄생



(사)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4일, 화남면 대천2리에서 최기문 영천시시장, 박봉규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윤나숙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장, 박영권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행복마을 58호 및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 32호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복마을 사업은 총 21개 자원봉사 단체에서 경로당 수리, 방충망 및 LED등 교체, 도색 및 벽화, 돌보미 지원, 우체통 교체, 이·미용 서비스, 장수 사진 촬영, 건강검진 서비스, 중식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 행복마을 사업은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경북행복마을 58호 사업과 연계해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가정용 소화기를 지원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태양광 벽부등을 설치하는 등 한층 더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마을 주민들은 "많은 분들이 마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나눔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자분들께 존경과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행복한 영천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재능기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천행복마을 스타빌리지' 사업은 지역 내 마을을 선정, 자원봉사자의 재능을 활용해 행복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재능 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영천 전역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반식/기자

안동시, 사과 개화량 부족에 따른 철저한 과원관리 당부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사과, 특히 '후지' 품종의 개화량이 평년 대비 20~70% 부족하다고 밝혔다. 올해 개화량은 농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년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개화량 부족의 원인은 지난해 잦은 강우와 더불어 일조량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지난해 안동시 강수량은 1526.5mm로 평년 대비 약 500mm 가량 많았다. 이에 갈색무늬병에 의한

조기낙엽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꽃눈 분화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적은 개화량으로 인해 착과량이 부족할 나무는 수세가 강해질 우려가 있으며, 그대로 방치하면 내년 꽃눈형성도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비량을 줄이고 하계전정을 철저히 하는 등 평년보다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환상박피·단근·생장조절제 처리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수세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윤근수/기자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사과꽃이 부족한 농가가 많지만, 개화기 기상이 현재까지 양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꽃이 적은 만큼 과일의 상품성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다소 착과량이 부족하더라도 철저한 과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과일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쫄쫄~ 두릅향기와 함께 봄을 즐겨요' 울진군 제3회 두릅축제 및 작은음악회에 초대합니다

4월 26일 ~ 4월 28일까지, 금강송면 전곡리에서 진행
손병복 울진군수, "울진 산골휴양마을 전곡리 방문해, 산골마을 정취와 함께 느껴보시고 두릅축제와 함께 봄을 만끽하는 추억의 시간이 되시길"바래

두릅축제 및 작은음악회 제3회

초대합니다. 울진군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인 전곡리 마을에서 두릅축제를 개최하오니, 많은 성원과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2024.4.26(금)~28일(일) 10:00~ /3일간

장소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마을주차장

주최 전곡리마을 주민회 / 후원: 한수원(주)한울원자력본부, (주)GB 이노베이션

행사내용 두릅채취 체험/음식만들기 체험/ 두릅 판매/ 마을 돌레길 트레킹 작은음악회(4월 27일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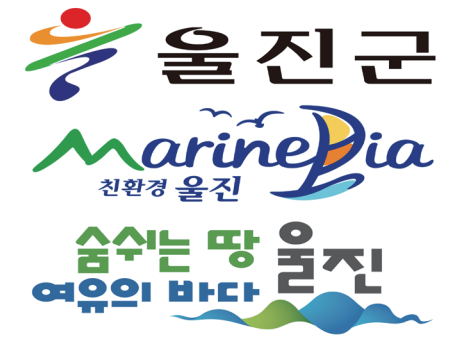
행사문의 마을이장 ☎ 010-5535-6752

버스운영 출발: 09:30 울진군산림조합앞 (4.26~28) 귀가(전곡리마을 주차장) 4.26일(16:30), 4.27일(19:00), 4.28(14:00)

전곡리주민회

울진군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금강송면 전곡리에서 봄맞이 두릅 축제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곡리 마을 주민회에서 주최하며 (주)한국수력원자력과 (주)GB 이노베이션 후원으로 진행된다. 축제 프로그램은 ▲두릅 채취 체험 ▲두릅과 마을특산물 경매 및 판매 ▲음식 만들기 체험 ▲마을 돌레길 트레킹 ▲보물찾기 ▲제기차기 ▲달보기 노래자랑 ▲작은음악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를 찾는 이들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 3일간 울진읍에서 금강송면 행사장까지 왕복 운행하는 전용버스를 운영한다. 울진군산림조합 앞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며 돌아오는 버스는 26일은 16시 30분, 27일은 19시, 그리고 28일은 14시에 전곡리 마을 주차장에서 탑

승하면 된다. 달덕 전곡리 이장은 "이번 축제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가하여 즐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산골휴양마을 전곡리에 방문하여 산골마을 정취와 함께 느껴보시고 두릅축제와 함께 봄을 만끽하는 추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신한울1호기', 계획예방정비 마치고 100% 출력 도달

연료교체, 각종 설비점검과 정지를 통해 발전소 안전성 향상시키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를 완료해
한울본부, "양수 원전 안전운영에 최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 투명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월 5일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신한울1호기(가압경수로형, 140만 kW급)가 지난 20일, 발전을 재개하여 23일 19시 20분경 100% 출력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신한울1호기는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연료를 교체하고 원자로냉각재

펌프, 저압터빈 등 각종 설비 점검과 정비로 통해 발전소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를 완료했다. 한울본부는 향후 원전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미래 먹거리 종합 청사진 작업에 착수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식품 등 10대 분과 구성

경상북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산업혁신협의회' 운영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총괄협의회장을 맡은 김현덕 경북대 교수와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식품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대표가 참여했다.

경북 경제산업 구조분석 주요 결과 등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협의회 추진 배경과 구성·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분야별 비전 등을 공유·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협의회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하고 각 분과는 분과장을 포함해 8명 내외이며, 모든 분야의 종합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총괄 위원과 자문위원회를 함께 운영한다.

협의회 구성원은 경북형 산업혁신 이행안을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함께 가진 연구기관, 지원기관, 기업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도는 그동안 경북의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원인 분석과 실태 파악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 이에 경북의 경제,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도의 종합적 산업발전 이행안을 만든다.

이행안은 인공지능(AI) 산업현장을 넘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서, '인공지능을 융합한 제조업 대전환'을 기본방향으로 삼는다.

전통적인 경북 제조업인 전자정밀기

기, 비금속제품 산업 등의 생산성 혁신과 고부가가치화, 아울러 신성장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전략방향 도출을 목표로 한다.

올해 6월 경북 중장기 산업혁신 이행안 초안에 대한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5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연말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 수립 이후에는 연도별, 부문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기술발전, 산업정책 동향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해서 이행안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경제 상황에 상시 대응하는 운영 체계를 수립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 경북은 저출생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장기전을 대비해서는 경제력으로 상징되는

든든한 후방이 필요하다"면서, "경북의 경제, 산업구조, 지역의 강점과 약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혁신적인 이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산학연관 모두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시작

1차 57명 배치, 7월까지 2개 농협에 총 90명 배치 예정

권기창 시장, "앞으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질의 계절근로 인력 확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히

안동시는 지난 23일 올해 처음 도입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57명을 안동시와 MOU를 체결한 라오스 출신 계절근로자들로 이날 마약 검사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지역농가에 배치됐으며, 향후 5~8개월간 지역 농가에 파견돼 영농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일 단위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계절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최종 2개 농협이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처음으로 근로자를 배치하게 됐다.

안동시와 안동와농협은 관리 전담 직원과 통역 인력을 배치해 계절근로자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농가에서 손쉽게 계절근로자를 신청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웹페이지)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성공

적인 추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안동시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예정 인원은 2개 농협에 총 90명으로 이날 1차로 57명의 계절근로자 배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7월 2개 농협에 33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배치로 영세 농가의 인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질의 계절근로 인력을 확보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수출지원정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수출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지역기업과 지역 수출 중소기업 100여 개사를 선정해 수출 마케팅비, 통·번역비 등 수출 활동비용의 최대 80퍼센트(%)까지 2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국제운송 ▲전시회 해외영업 지원 ▲홍보·광고 ▲디자인·홍보영상 ▲통·번역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총 6개다.

중동발 위기(리스크) 확산 등으로 인한 세계(글로벌) 물류 대란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분야를 신설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요건인 해외규격 인증취득을 지원하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통해 오는 5월부터 11월 중 매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매월 말까지 지원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매월 지원 신청을 받으며, 신청서류도 간소화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배연정 氏 '제67회 보화상' 대상 수상

대구·경북 최고 효부 반열에 올라

청송군은 진보면에 거주하는 배연정 씨가 재단법인 보화원이 주최하는 제67회 보화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보화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보화상 시상식은 재단법인 보화원에서 매년 대구 및 경북 지역의 효행과 열행, 선행을 실천한 이웃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배연정씨는 30여년을 간호사로 근무하며 이웃 노인의 건강을 살피는 일에 앞장서 왔으며, 고령의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효행을 실천하는 등 보화상의 의미에 걸맞은 삶을 살아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대상 수상을 축

하드리며 효행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 우리 청송군에서 나와 자랑스럽다." 고 밝혔다.

한편 제67회 보화상 시상식은 오는 6월 14일 오전 11시 보화원회관 승당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9개 구·군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20여 명 참석

대구광역시는 4월 24일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위생법에 따라 소비자 단체 또는 개인 중에 일정 자격을 갖춘 자이며 합동점검이나 수거검사 등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4년 식품안전 관리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임무와 활동 요령, 식품 등의 수거·검사 직무 수행 방법, 식품독 예방 및 관리 요령 등이다.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지역에서 식품의 수거·검사,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분야 위생관리를 위한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다.

노권을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추진해 식품업계의 위생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3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윤근수/기자



은 23,065개의 급식소 등 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식품독 예방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경주시 내남면, 자매결연 남원시 주천면과 교류하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공감대 형성 나서

면장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주민 간 상호기부에 적극 동참하기로 협력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축제 시 상호 방문 및 교차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범위를 넓힐 것을 협의했다.

또한 이동원 내남면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하는 경주시에 대한 응원을 호소하고 공감대 형성 및 오는 10월에 열리는 신라문화제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이에 김재하 주천면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제94회 남원 춘향제'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에 대해 홍보하며 행사 기간 주천면 방문 추진을 부탁했다.

이동원 내남면장은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경주시를 방문할 것을 환영하며, 지난해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는 내남-주천면 간 교류가 점점 더 활성화돼 두 지역의 화합을 바탕으로 상

생 및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남면과 남원시는 지난 2000년에 자매결연을 한 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기관단체장 및 직원들이 격년으로 상대도시를 방문하며, 영호남의 교류의 자리를 이어와 주민들 간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있다,

윤태용/기자

문경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신활력장터 설명회 개최!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 가져



문경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문경시의 특화자원 융복합을 통한 스포츠식품 메카 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으로 추진 중인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을 대상으로 4월 23일 설명회를 개최하였

다고 밝혔다.

이번 신활력장터(가칭) 설명회는 참여 액션그룹들의 부스 운영의 주체가 되어 지역(영순면)과 협력하여 사회인 야구대회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문경야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본산업개발원과 1:1 업체별 컨설팅을 통한 먹거리, 풍차바베큐, 체험부스, 파머스부스 등으로 운영된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 및 문경시 야구협회, 액션그룹, 영순면 등 40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참여 액션그룹은 경영체, 축제팀, 영순면 마을주민 등 총 20개 팀 이상으로 구성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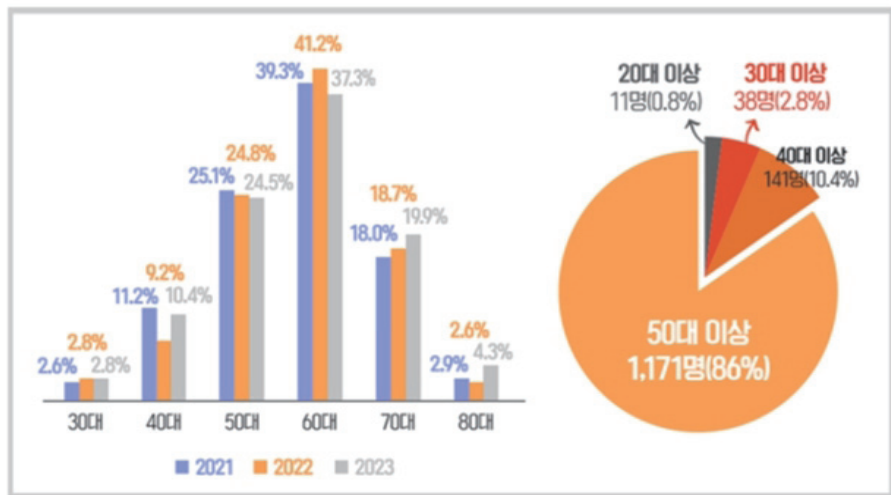
'문경농촌신활력사업추진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유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사회(영순면)와 협력하여 액션그룹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서울 파산신청자 86% 50대 이상, 남성 · 1인가구 비율 높아... 대부분 다중채무

89% 무직자 · 85% 임대주택 거주자, 10명 중 9명 파산시 자산총액 1천만원 이하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 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주요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2023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859건 중 16.8%에 달하는 1,487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접수됐다.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가 19.3%, 3인 가구(9.0%) 순으로 가족 도울 곳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는다는 결론이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

올해 처음 발표한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고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해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백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 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 원 미만이었으며,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2,231명의 악성부채 3조 809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현재 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동작·노원·청년동행센터(강남) 등 12개 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인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한국리서치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공적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시민 1,194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9.63점을 받았다. 서비스 9.62점, 상담인력 9.74점, 센터환경 9.48점으로 고른 만족도를 보였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이고, 이중 60대 남성이 27.7%에 이른다"며, "빛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김제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동행, 안전한 식·의약 환경조성과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김제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약물관리, 재난 대응 의료지원 체계구축, 위생안전관리, 감염병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진료소 운영 최우수기관',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우수', '식품안전관리사업 유공기관 표창', '식품안전관리사업 유공기관 표창' 등 중앙과 도 단위 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 지역민(地域民)이 행복한 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 운영 추진

시는 '지역보건법' 설치기준에 따라 읍·면에 14개 보건진료소 및 25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며 보건진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진료 및 지역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로 보건진료소 주 5일 내과 진료 운영이 불가해 읍·면별 순회진료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사업은 축소됐지만 14개 보건진료소의 지역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경로당 중심의 방문건강관리로 어르신들의 건강 기초 검사와 심뇌혈관·고혈압·당뇨·치매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사업을 더욱 확대해 가고 있다.

지역보건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진료소가 협업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진료소와 진료소가 지역의 1차적인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며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 시켜주고 있다.

◆ 2023년 공공심야약국에 이어 2024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공공심야약국은 민선 8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성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전문 약사가 취약 시간대(밤10시~새벽1시)에 대기하는 약국으로 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와 올바른 복용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2023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0%가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1일 평균 이용자는 12명으로 연인원 4,196명이 이용해 김제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임이 입증됐다.

또, 2024년 새롭게 선보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민음병원에서 평일 월·화·금 저녁6시~새벽1시, 토요일 아침9시~저녁 7시 일부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실적은 1,260건이며, 18시 이후 진료는 464건, 토요일·공휴일 진료는 321건으로 이전에는 관내 소아 환자가 야간·휴일에 진료받을 의료기관이 없어 인근 타지역(전주, 군산, 익산 등)으로 가야 했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아픈 아이들에게 빠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김제시, 식중독 예방 사업 연중 추진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는 관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과 식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분기 지역주민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관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시설 약 8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완료했다.

특히, 시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지도 및 SNS·홈페이지 등 정기적인 홍보 실시를 통해 관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시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 발생 시 후유증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김제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기접종자와 예방접종 금기자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해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장소는 읍·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를 포함해 보건진료소 및 진료소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자들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접종할 수 있다.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시의 경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인 50대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1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드기 기피제, ▲팔토시, ▲뚫자리 등을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행사시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수시로, 읍·면·동 이장 회의 시에는 분기별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올바른 기피제 사용법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위험이 있는 모악산, 금산사, 문화체육공원, 벽골제 등 6개소에는 자동분사기를 설치했으며, 일부 마을회관에는 진드기 기피제 보관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농어촌지역 노후 진료시설 리모델링공사로 의료 접근성 강화

보건소에서는 농어촌 노후 보건진료소와 진료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 백학보건진료소의 경우 건물이 노후화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난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했다.

백학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 지붕과 창호 외벽 단열공사를 포함한 보온·방수 및 에너지 효율을 중시해 두고 진행했으며 노후 전기·기계설비의 교체와 건축물 외장재 교체 공사도 함께해 방문객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김현태/기자

경남도, 과일값 폭등에도 어린이집 과일간식 공급 이상 무(無)

과수농가에 판로 보장,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일석이조!

경남도는 도내 우수한 농산물의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도내산 제철 신선과일을 어린이집 원아에게 지원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으며, 예산 32억 원을 투입해 도내 어린이집 아동에게 제철과일을 1인당 100g 이상, 주 1회, 연 45회 제공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의하면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94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 상승했고 그 중 신선과일 물가상승률은 40%를 넘어섰다.

경남도에서는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과일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19일까지 4주간 공급업체 21곳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56곳의 공급 실태 표본조사를 시행했다.

경남도는 과일 공급업체와 어린이집을 방문해 도내산 과일 수급 상황, 도내산 공급 여부, 과일 신선도 등을 직접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올해 공급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1인당 지원단가를 지난해 1,100원에서 올해 1,300원으로 18% 올리고, 도내 농가, 생산자단체와 직거래하거나 지역농협, 도매시장을 이용해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제대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비용도 낮췄기 때문이다.

특히, 김해시 등 시군 8곳에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과일 간식을 공급하고 있다.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요즘 같이 과일값이 비쌀 때는 어린이집에 정해진 급간식비 내에서는 원아가 과일을 충분히 먹기 어려운데 도에서 주 1회 신선한 제철 과일을 직접 제공해 아이들에게 넉넉히 먹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공급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과일이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유아기 올바른 식습관은 평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린이집 원아에게 맛 좋고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문화누림에 소외됨이 없는 강원, 문화누리카드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재)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자 워크숍'이 오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강릉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문화누리카드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4년 통합문화이용권 주요 안내 및 민원응대 교육'과 ▲2023년도 시군 우수사

표 발표 ▲강원특별자치도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방안' ▲강원문화재단 '2024년 기획사업 및 가맹점 관리 방안 안내'의 순서로 진행되며, 문화누리카드사업 추진 방향의 이해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한 사업 담당자의 실질적인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익식 문화예술과장은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만큼 각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누림권 확대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업 담당자들이 업무 추진시 생



강릉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용 건물. 이번 워크숍을 위해 마련됐다.

강호철/기자

아산시, '제2회 이순신 백의종군길 마라톤대회' 교통 통제 안내

염치(은행나무길)~음봉(이충무공묘소)~둔포(운선교) 구간별 통제

아산시는 오는 28일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이순신 백의종군길 마라톤대회'를 위해 구간별 교통을 통제한다.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하나로 개최되는 이번 마라톤대회에는 아산시민과 전국 마라톤 동호인 7,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에 따라 대회 구간인 염치(은행나무길) ~ 음봉(이충무공묘소) ~ 둔포(운선교)까지 국도 45호선 등 주요 도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구간별 교통 통제가 시행된다.

경찰관,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원 등이 대거 투입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며, 교차로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은 인력을 추가 배치해 교통을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할 계획이다.

휴일 교통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면 통제 구간을 최소화하고, 대회 상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교통 통제에 따른 운전자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제 구간 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사전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라톤대회 개최로 인한 교통 통제에 아산시 주요 도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28일(일요

일) 교통 통제 시간에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교통 통제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청남도, 청년층 자살 예방 지지환경 구축

도,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자살 고위험군 발굴·심리 지원 추진

혜전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마음숲 힐링캠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다면, 자살 위험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살을 예방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재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숲 힐링캠프 신청자 대상 검진 참여하기

프로그램

- 자살예방 지킴이교육 / 소요시간: 60분
- 상징성 명상 / 소요시간: 30분
- 산기차체조 및 마음숲 산책 / 소요시간: 30분
- 차 테라피(대체프로그램) / 소요시간: 30분

프로그램 관련문의

· 혜전대학교 치유센터 최문영 T. 041-630-2437

충청남도도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내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 자살 예방 조기 검진 및 심리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부터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최근 50대 이하 청장년층의 자살률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충남 자살자 701명 중 청년층(20 부터 30대) 자살자는 150명(전체 21%)이며, 충남 20대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4.8명, 30대는 36.0명으로 전국 대비 각 3.4명, 10.7명 높다.

아울러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살 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면, 총 85개 의

기관을 방문한 자살 시도자 중 10부터 20대는 29.4%로 9008명, 18세 이하는 14%로 4280명, 30대는 13.9%로 4251명 순으로 집계돼 청년층의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청년 대상 자살 예방 조기 검진을 진행하고 고위험군 발굴, 심리 지원 및 자원 연계 등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층 자살 예방 지지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충남정신건강관리망(SIMS)을 통한 정신건강 검진 △고위험군 상담 및 자원 연계(치료비 지원 등) △청년 대상 치유(힐링)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 홍보

등이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청년 364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추진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1인 가구 및 청년 대상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도는 올해 도내 대학 30곳, 충남야동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울 및 자살 정신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지원,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예산치유의 숲과 연계한 '마음숲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청운대, 혜전대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달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25일 혜전대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검진(우울, 자살)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상징성 및 다도 명상 △산까지 체조 및 마음숲 산책 등으로 구성했다.

이헌희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청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연령층으로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정신건강 향상 및 심리 회복을 돕고 자살 위험성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2024년 제1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태백시는 4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제1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공고일 90일 전부터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와 관련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로 출고예정일에 따라 지원되며, 보조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다.

단,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무 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신청이 취소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태백의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도 올해 3월부터 추진중이며, 전기이륜차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 후, 대리점에서 관련서류를 무공해차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상근/기자

충북도, 올해 첫 수소산업 산학연관 기술교류회 개최

수소산업 인력양성 및 예비수소전문기업 사업 설명으로 전문성 강화 도모

충북도는 23일 음성군 충북에너지 산학융합원에서 올해 첫 수소산업 산학연관 기술교류회를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주관하여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에는 국가 수소 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천연가스관련 기술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청주대학교, 수소 센터 기업인 대한에스티 등 수소와 관련된 도내 공공기관, 대학교, 기업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제13회 수소산업 산학연관 기술교류회를 맞이하면서 충북의 수소에너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및 기업

지원 사업 설명과 정보교류를 중점을 두고 자리를 마련했다.

본 교류회에서는 지난 달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설명(충북테크노파크)을 시작으로 수소산업 인력양성 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충북 수소산업생태계 전략(충북도) 순으로 수소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행사 마지막에 지난 3월 27일에 개소한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를 견학하면서 센터의 기능과 수소 관련 기업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행사를 통해 각 기업들의 건의내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소 관련 기업들이 우리 도에서 사업활동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기술교류회로 애로사항 해결과 신규사업 발굴하는 기술교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 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주관 YFTF 영양축제관재단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 업계 최초 '1Tb TLC 9세대 V낸드' 양산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 가능한 최고 단수 V낸드

'채널 홀 에칭' 기술로 업계 최대 단수 뚫어...생산성 증대

□ 업계 최소 크기 두께, 차세대 인터페이스 적용 등으로 기술 리더십 증명

최첨단 기술로 셀 면적은 줄이면서 간섭 현상은 줄여 이전 세대 대비 비트 밀도 1.5배 증가 이전 세대 대비 33% 향상된 데이터 입출력 속도 지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하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 TLC(Triple Level Cell): 하나의 셀에 3bit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Bit Density)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

* 비트 밀도(Bit density): 단위 면적당 저장되는 비트(Bit)의 수
더미 채널 홀(Dummy Channel Hole)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해 제품 품질과 신뢰성을 높였다.

* 더미 채널 홀 (Dummy Channel hole): Cell Array에서 Plane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채널 홀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

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 혁신을 이뤄 생산성 또한 향상됐다.
'채널 홀 에칭'이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적층 단수가 높아져 한번에 많이 뚫을수록 생산효율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정교화·고도화가 요구된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해 낸드플래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 Toggle DDR: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1.0은 133Mbps, 2.0은 400Mbps, 3.0은 800Mbps, 4.0은 1.2Gbps, 5.0은 2.4Gbps, 5.1은 3.2Gbps의 입출력 속도를 지원

*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기존 SATA 전송 속도의 성능 한계를 극복한 고속 인터페이스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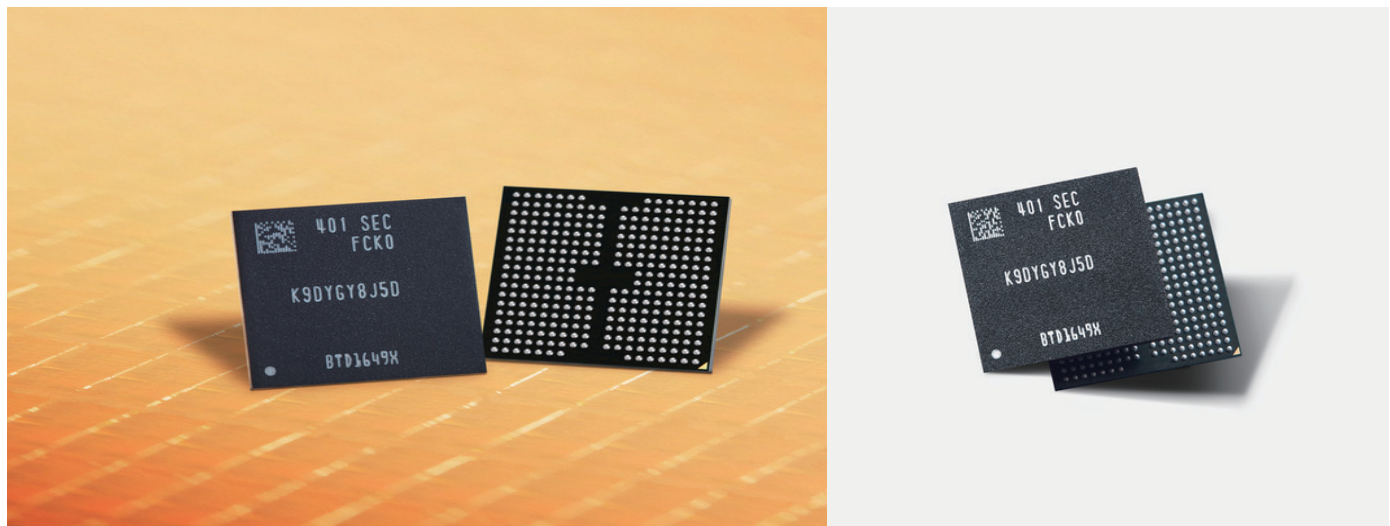
* PCIe 5.0: 기존 PCIe 4.0 대비 대역폭이 2배로 커진 32GT/s를 지원하는 차세대 PCIe 통신규격

또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하여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다. 환경 경영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허성희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AI 시대에 요구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QLC(Quad Level Cell): 하나의 셀에 4bit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
김범상/기자



조용의 부천시장, 코리아팩2024 방문해 패키징 기업 격려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천시 패키징 기업 50여 개사 제품 전시·홍보

조용의 부천시장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동시 개최되는 '코리아팩 2024' 및 '2024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이하 패키징대전)' 행사에 방문해 패키징 기업을 격려했다.

코리아팩은 국내 최대의 패키징산업 전시회이며, 부천시가 후원하는 '패키징 대전(주최: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 주관)'은 패키징산업의 우수기술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시상식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의약품 포장기계, 종이완충 포장재, 제약·식품·화장품 포장기 등 부천시 50여 개사 업체가 전시에 참여해 기업 홍보에 힘쓴다.

이날 행사에 방문한 조용의 부천시장은 전시에 참여한 패키징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코리아팩 개최식에서 조용의 부천시장은 "이번 행사가 기업의 판로개척·국제교류·협력·투자의 폭을 더욱 넓히고, 부천시 패키징 기업이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재질 투명 맥주 PET'라는 제품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롯데칠성음료(주)를 비롯해 총 41개 기업과 학생 15명, 공로자 2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천시 소재 기업인 주식회사

케이알의 '셋오프 리필 에어리스팅기' 등 4개 사가 부천시시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서 수상한 기업들의 제품은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수상작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첨단기술과 융복합이 가능한 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 산업을 5대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를 통해 친환경 패키징 기술개발 및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 패키징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권동일/기자



서울시, 시민 1천만이 이용하는 한강수상시대 연다... 연 9,260억 경제효과 창출

보트 퍼레이드, 케이블 수상스키장 등 수상 콘텐츠 다양화, 여가 중심지로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강에서 일상을 보낸다. 아침엔 새롭게 생긴 수상 오피스로 출근한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일을 하니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풀려 출근길이 즐겁다. 퇴근 길에는 한강 뷰를 감상하며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에서 먹을 계획을 세운다. 주말에는 서울로 놀러 오는 친구와 함께 여의도 수상호텔, 한강 교량 위 전망호텔 중 한 곳에서 숙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1천만 명이 한강의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연다. 한강으로 출근해 회사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선박이 이동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수상을 활성화한다. 바라는 한강을 넘어 즐기고, 경험하고, 느끼는 한강을 만들어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리버시티 서울'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는 연간 6,445억 원의 생산파급 효과, 연간 2,811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연간 9,256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6,800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천만 명이 수상 이용 시 이용자 지출액을 산출하고 유발계수('15년 지역산업연관표 서울부문 기준)를 적용하여 생산파급 효과, 부가가치 효과, 취업창출 효과를 산출했다. 현재 한강의 수상은 활용이 저조해 비어있는 공간과 다름없다. 수상 이용 시민은 연간 90만 명으로 한강공원 이용객 6,900만 명에 비해 현저히 적고, 한강 위 선박도 극히 소수만 다닌다. 서울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3천척 이상인 것에 비해 선박들이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시설은 130선석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강에 '수상오피스'를,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옆에는 '수상호텔'을 띄운다. 명동 먹거리 골목처럼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공연도 감상하는 한강 표 먹거리 골목 '수상푸드존'을 조성한다. 케이블을 활용한 '수상스키장'을 만들고, 기존에 회원들에게만 개방했던 '독심 윈드서핑장'을 일반시민까지 개방해 수상레저활동을 활성화한다.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 시민이 증가하는 마이보트 시대를 맞아, 현재 130개 선박만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2030년까지 총 1,000선석으로 확대한다. 올 상반기 개장 예정인 난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 더해 이촌과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지어 확충한다. 올 10월부터 여의도~경인아라뱃길에 유람선을 연간 1,000회 이상 정기운항하고, 리버버스를 운영해 한강의 물길을 활용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한강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년 3월 밝혔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편으로, 수상 분야 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한강르네상스 2.0)'는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 조성을 위한 4개 핵심전략, 55개 선도사업을 담고 있다. 그중 수상 분야는 서해벚길 복원 및 서울항 조성 등 7개 사업이 있다.

런던, 파리, 뉴욕,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은 수상교통으로 도시 내 랜드마크를 연결하고, 다양한 문화·레저·업무·상업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 수상을 활성화하면서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은 한강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2030 리버시티, 서울'로 조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3대 전략은 ①일상의 공간 ②여가의 중심 ③성장의 거점이다. 총예산은 5,501억 원이 투입된다.(민간 3,135억 원, 재정 2,366억 원)

종합계획은 일상 속 삶의 질을 높이는 수상 환경 조성,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하는 수상 활동 다양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상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첫째, 한강은 특별한 날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주요 무대가 되는 '일

상의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시설로 '수상호텔', '수상오피스'를 조성한다. 한강의 경치를 보며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을 만들고, 쾌적하고 편리한 수상 이동의 장점을 활용한 대중교통·관광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를 운영한다.

수상오피스 업무를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수상 공간을 활용한 복합공간이다. 한강변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또는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수상호텔 한강 수상에 숙박, 여가, 컨벤션 등의 기능을 갖춘 호텔을 조성한다. 수상호텔에 머물 고객에게 선박 픽업, 유람선 투어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사할 계획이다. 여의도 물빛무대 주변에 조성하는 방안을 SH에서 올리는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25년에 호텔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한강의 수상 공간을 활용해 숙박수요에 대응하면서 '3천만 관광객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숙박 인프라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카페 개선 한강대교 복단의 교량 위에 있는 '직녀카페'를 특색있는 숙박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한강과 서울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 숙박시설로서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직녀카페 맞은 편의 권유카페를 비롯한 전망카페 4개소는 서울의 우수한 로컬 브랜드를 선정 운영하는 '로컬브랜드 카페'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상푸드존 한강을 바라보며 K-푸드를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버스킹 등 공연문화도 감상할 수 있는 먹거리 랜드마크. 약 2,400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15~20개소의 판매 부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5년 설계, 2026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수요맞춤형 선박 올해 10월 리버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수상택시는 폐지하고 소규모의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관광을 활성화 한다. 한강 야경·석양 투어, 선상 식사·행사 등 다양한 관광·유람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강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강 내 수상시설 및 레저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강 리버버스 주요 주거지역, 업무지역 등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자 관광 수단이다. 1척당 199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고, 선박 내에는 개별 좌석,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인원이 출퇴근길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올 10월부터 운영한다.

둘째, 일상에 지친 시민이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한강을 '여가의 중심'으로 조성한다. 초보자도 참여 가능한 레저시설인 '케이블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일부 단체 회원들만 이용하던 '독심 윈드서핑장'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한다. VR·4D로 수상 재난 대응법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수상 재난안전체험관'을 2025년부터 조성을 추진한다.

케이블 수상스키장 기존 보트에 줄을 단 수상스키와 달리 높은 탑처럼 설치된 케이블을 이용해 수상스키를 타는 시설이다. 간단한 장비만 착용하면 초보자도 안전하게 탈 수 있으며, 다양한 묘기도 연출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 축제·행사 선박에 조명을 설치해 한강을 빛의 행렬로 가득 채울 보트퍼레이드, 선상 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이색 체험 수상영화관 등 한강 대표 사계절 축제인 '한강 페스티벌'과 연계한 새롭고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하여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독심 윈드서핑장 기존 독심 윈드서핑장이 단체 회원들에게만 개방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구조를 개선한다. 수상북지강화 취약계층의 수상 관광·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복지의 지원 범위를 수상까지 확대한다. 1단계로 '24년에는 기존 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등)의 이용범위를 수상까지 확대하고, 2단계로 이용수요, 시민의 요구 등



2030년, 1,000만 수상이용 시대를 열겠습니다.

을 조사해 수상 전용 바우처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한강에 수상 복합인프라를 구축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력원인 '성장의 거점'으로 만든다. 한강 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총 1,000선석으로 늘리고,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신규로 짓는다. 여의도에 선착장을 조성해 여의도~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고, 향후 여의도에서 승선해 한강을 따라 서해까지 갈 수 있는 서울항을 만든다.

잠실마리나 중대형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도심형 마리나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관광수요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2025년부터 잠실한강공원에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해 2026년 개장할 계획이다.

한강아트피어 선박 계류공간 외에 부유식 수영장, 옥상전망대, 수상산책길 등 시민 레저·휴식공간이 포함돼 세계적 내내 문화·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마리나 시설이다. 이촌한강공원에 올해 상반기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뒤 설계와 공사를 시행해 '26년 개장한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수상 69척, 옥상 86척을 포함해 총 155척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교육장, 카페, 휴게공간으로 구성된 복합 마리나시설이다. 운영자 선정 후 6월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여의도~아라뱃길 유람 활성화 대형 유람선도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여의도에 조성한다. 그동안 정박 공간이 없어 대형 유람선은 수상에서 회항했다. 여의도 선착장이 조성되면 여의도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선박 관광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선착장은 마포대교 남단에 올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항 조성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국내역객터미널로 여의도에 조성된다. 5천톤 급 이하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다. 서울항이 들어서면 한강에서 서해까지 물길로 연결될 수 있어 수상 관광의 허브가 되고 수상과 육상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의 여의도한강공원에 올 해부터 설계와 공사를 시작해 2026년 하반기에 개장한다.

안전관리 강화 선박운항이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교통 관제시설(VTS)을 구축하고, 항로표지를 정비하는 등의 수상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사고 및 민원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 사각지대에는 수상 안전부표를 설치해 안전을 더욱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세부 사업별로 공정관리를 지속한다. 올 하반기에 여의도~경인아라뱃길 선착장 조성, 한강 리버버스 운영, '26년에는 서울항을 비롯해 수상푸드존, 잠실마리나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그동안 바라보는데 그쳤던 한강의 물 위가 앞으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한강 수상을 시민 일상생활의 공간, 여가의 중심지,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2030년까지 1천만 명 한강 수상이용 시대를 열고 증가하는 수상레저 수요 충족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경제효과를 창출해 서울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교육청, 전국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워크숍 개최

경북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전국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은 2024년 유아교육 분야 국가시책사업의 하나로 유아의 안전한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가정 내 안전한 디지털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개 교육청(경북,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전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운영 교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 장학사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공동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과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행사는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미래 사회와 유아교육’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오후 분반

활동을 통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한 관리자 역할과 자세’ 강의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원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놀이 환경의 이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사 분임별 컨설팅 시간을 마련하여 시도 간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상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전문가 지원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행사에서는 손혜진 오산대학교 교수의 교사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반 가정 연계 방안’ 강의와 김교령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교육과정 기반 유아 디지털 교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분임별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한 공유와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 참여 교사는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전국 교원 네트워크 선도 교원으로서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

영 사례 발굴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참여하게 되며, 경북교육청은 6개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전국 교원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우리 유아들에게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중국 숙천시실험학교 국제교류단 진보초등학교 방문



중국 숙천시실험학교 진대평(陈大平) 부교장을 단장으로 교사, 학생 11

2024학년도 상호방문형 국제교류학교 운영

명이 지난 22일~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해 한국의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문화교류 공연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보초등학교와 숙천시실험학교의 교류는 2014년 결연 후 10번째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통해 글로벌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우호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양국의 학교는

그동안 꾸준히 지속되어온 교류학습을 통해 학교 상호 간 교육정보 교환은 물론 학생들의 홈스테이와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취구 진보초등학교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 상호 간 우의를 다지고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태국 교육부 관계자, 춘부리 직업학교장 의성유니텍고 방문



2024 해외 우수 유학생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이날 태국 교육부 및 춘부리 직업학교 관계자들은 본교 교직원 소개를 시작으로 학교 시설을 듣고 교실과 실습실을 비롯한 급식실, 동아리실, 생활관 등 주요 시설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학교 시설에 대한 깊은 신뢰와 만족감으로 태국 유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이 기대된다고 극찬하였다.

특히, 태국 우수 유학생들 개별 면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최상의 만족도에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주말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어 집중 교육 지원 등 의성유니텍고등학교측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태국 유학생들이 의성유니텍고등학교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수 유학생 선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24학년도 8명의 태국 해외 우수 유학생들이 입학의 계기로 재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태국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입체적인 국제교류 환경 구축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성유니텍고등학교와 춘부리 직업학교는 창의적인 블렌디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에듀의 동반자로서 행복한 동행이 적극 기대된다.

의성 유니텍고등학교장은 “학력 인구조감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산업현장에서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해외 우수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교육 환경, 기숙 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오점이 없도록 전 교직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정금자/기자

경북교육청, 2028 대입 개편에 발맞춘 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실시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개편, 그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한다

임종식 교육감, “변화된 2028 대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학지도로 통해 성공적인 진학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 도내 중학교 학부모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중학교 학부모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제도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동부권(포항-22일), 서부권(구미-23일), 북부권(안동-24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북부권 연수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연수도 함께 진행됐다.

권역별 대면 연수에는 1,000여 명의 학부모가, 비대면 연수에는 1,500명이 넘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 연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 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학점 취득 기준과 과목 이수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해 말 발표된 ‘2028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인 통합형 수능 과목 체계와 내신 5등급제, 2028 대입 전형 변화 예측, 예비 고등학생 진학 설계 방향과 학습 전략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새 대입 제도 개편에 따른 학생들의 대학 진학 역량 향상을 위해 수능 성취도 향상 전략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 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역량 향상 방안을 설명하고, 단위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과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변화된 2028 대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학지도로 통해 성공적인 진학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교육지원청 위(Wee)센터’, 2024학년도 학업중단속려제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울진 관내 26개 초·중·고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울진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제도 안내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지난 22일, 울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울진 위(Wee)센터 상담업무담당자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예방속려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업중단속려제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학업중단속려제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속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학업중단속려제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하여 학업중단속려제의 올바른 운영 지침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울진 위(Wee)센터와 협약을 맺은 다양한 체험기관을 안내하여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심리 정서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속려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에 대해 연수했다.

울진 위(Wee)센터장 김진택 교육지원청장은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들이

장문화/기자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상북도



경주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구미교육지원청, 독서로 시스템 활용 연수 실시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활용으로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지원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화), 구미시립중앙도서관에서 관내 초, 중, 고 독서교육 담당자 대상, ‘독서로’ 시스템 활용 연수를 실

시했다. 실습 위주 연수를 위해 25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 지난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화, 목 총 4회에 걸쳐 연수를 진행한다.

‘독서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한 독서교육통합플랫폼으로 지난 23일(화)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한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선 학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구축·운영되어 온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사용하였었는데, 이번에 ‘독서로’로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독서교육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로’ 시스템 활용 연수를 다가감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연수에 참여한 A교사는 “독서로 시스템의 밸런스 게임, 독서마라톤, 독서토론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독서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김동현/기자

“온몸에 전율”천연기념물 예천 천향리 석송령 4월 한시 개방 현장!

“와~ ”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리며 예천 천향리 석송령을 찾은 탐방객들은 석송령의 길게 뻗은 가지와 겹쳐진 파란 하늘만 올려다봤다.

지난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석송령 한시 개방 행사를 찾은 탐방객들은 석송령의 보호책을 들어서며 감탄사와 함께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군은 이들 동안 약 600백여 명의 군민과 경기도, 울산, 대구 등지에서 온 400여 명의 탐방객이 석송령을 찾았다고 밝혔으며, 탐방객들은 석송령 나

무 등치를 안고 사진을 찍는 등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특히 13일에는 김학동 예천군수와 석송령보존회 등 예천군 관계자와 군민이 함께 참석해 한시 개방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송의 진정한 가치와 문화유산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천군 문화관광과 하미숙 과장은 “예천군민과 탐방객들의 기대 이상의 호응을 확인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규제 중심의 문화유산 정책에서 탈피해 군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문화유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석송령 한시 개방은 4월을 시작으로 6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개방된다. 김진일/기자



포항시, 민관 협력으로 k-로봇 선도 도시 도약 ‘본격 시동’

이 시장, “로봇비즈니스베이 생태계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전폭 지원”

포항시가 차세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 로봇 핵심기관들과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K-로봇밸리를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포항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뉴로메카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함께 로봇 공동연구실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주)뉴로메카는 포스텍 출신의 박종훈 대표가 창업한 기업으로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을 기반으로 자동차 서비스 제공과 스마트공장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2023년 산업포장 수상, 7년 연속 올해의 로봇 기업 선정 등 한국 로봇 분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이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로봇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해 로봇 파트너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 고강도 작업장의 맞춤형 산업용 로봇으로 모바일 로봇, 협동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해 보다 안전한 제조현장을 구현하고 있다.

이날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재)한국로봇융합연구원, (재)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한국로봇산업협회, (주)뉴로메카, (주)원익로보틱스, (주)에이디로보틱스, 포스텍기술지주(주) 등 9개 기관은 ‘민관협력 포항 로봇 비즈니스베이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로봇산업 분야의 허브 기관으로 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차세대 로봇 분야의 진흥을 위한 학술회의, 교육, 세미나 등의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수도권 로봇기업 포항 로봇비즈니스베이생태계 조성 협력 ▲로봇 및 자동차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차세대 로봇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동향과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포항로봇비즈니스베이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과 기술경쟁력, 상용화 등의 실행전략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아울러 (주)뉴로메카는 포항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내 신사육과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혀 지역 로봇산업에 대한 전망에 청신호를 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로봇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상용화를 위해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로봇비즈니스베이 생태계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포항시가 한국 최고의 로봇산업 핵심 거점에서 나아가 글로벌 로봇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의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이사장, 이관희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소장,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손용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박종훈 (주)뉴로메카 대표, 최용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AI 로봇융합연구소 지능제조로봇연구센터장, 고병철 포스텍 기술지주(주) 대표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포항의 로봇산업의 미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포항시는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에 지난 2017년 총사업비 814억 원을 투입한 수주로봇융합실증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2019년 안전로봇실증센터 건립(총사업비 672억 원), 2021년 해양장비 시험평가센터 구축(총사업비 30억 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 관련 실증 시험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전국 최고의 로봇 연구와 기업 활동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봇산업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우주, 항공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까지도 전후방 산업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은 연평균 36.1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2년 약 20조 8천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30년까지 약 245조 5,89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윤타용/기자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군위, 글로벌관광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대표축제 개발 시작



군위군은 지난 23일, 글로벌관광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대구경북신공항 도시에 어울리는 관광도시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대표축제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작은 축제들을 연결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와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생활축제를 함께 개발한다.

축제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문가가 함께하는 ‘축제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축제의 중심이 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축제기획학교’도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 개발 단계에서 실제 추진까지 관 주도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는 군수를 비롯한 군의

회 의원, 직원들이 참석해 축제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각 부서의 팀장들이 참석하여 공급자가 아닌 축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축제콘텐츠 발굴을 위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의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장기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대표축제를 개발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 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라며 “군위의 정체성과 다양한 자원이 녹아있는 대표축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동호/기자

의성군, 영농기·우기 대비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

의성군은 관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의성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642개소로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영농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우기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은 제방의 침하 및 누수, 통관의

균열 상태, 물넘이 및 방수로의 상태점검 등 시설 구성요소별 외관 조사로 진행된다.

군은 점검을 통해 발견된 누수나 손상 등 시설물 상태변화 정도를 근거로 상태평가 후 보수·보강 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지장물 제거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실시한다.

안전 점검에서 등급이 높더라도 이상

징후가 있는 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인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수지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적극 대비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주시 ‘안전하게! 신나게!’ 영주시민 자전거 페스티벌 개최

영주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영주시 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2024 영주시민 자전거 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오전 9시 영주교 아래 서천 둔치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순위를 다투는 대회와는 다르게 교통수단을 넘어 생활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전거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다.

오전 9시 20분 서천 인라인스케이팅장(영주교아래)을 출발해 적서교를 건너 다시 서천 둔치로 돌아오는 약 10km 코스로 1시간 정도 진행된다.

대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전거를 개별로 지참해야 하며 선착순 참가자 500명에 한해 경품권, 간식 및 기념타월이 제공된다.

경품으로는 자전거, 헬멧 등 자전거 관련 용품과 휴지 등 각종 생필품을 준비해 당첨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권정상 영주시자전거연맹회장은 “이번 대회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가족·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서천 강변을 달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는 자전거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영주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바이크시절트를 운영 중으로 앞으로 자전거 타기에 불편한 도로

를 꾸준히 정비하고 자전거 전용 코스를 신설해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2014년부터 영주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영주시민의 상해에 대한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단 시 10만 원부터 30만 원의 진단위로금과 20만 원의 입원지원비를 지급하며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함께 지원한다.

김진일/기자

칠곡 동명면, 3go와 연계한 봄철 생활환경 대청소

동명면은 새봄을 맞이하여 23일 팔거천 주변 청소를 중점으로 봄철 생활환경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3go와 연계하여 봄철 해빙기를 맞아 겨우내 하천변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동명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등 여러 사회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참가자들은 팔거천 임시공연장에 집결하여 ‘3go!(먼저 쓸go, 먼저 줍go, 먼저 치우go)’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이후 2개조로 나뉘어 하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새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청소에 참여한 주민들은 “깨끗한 하천을 보니 뿌듯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더욱 기쁘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동명면장은 “3go! 작은 실천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명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

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이 QR코드는 한국연문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홈페이지 k-shoppingfesta.org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 2024

K-SHOPPING FESTA

2024.5.1-5.28



2024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www.sabal21.com

2024 문경찾사발 축제

2024. 04. 27. (토) - 05. 06. (월)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일원

문경찾사발, 새롭게 아름답게



박서진



박군



조명섭



영기



주미

개막식

2024. 04. 27. (토) 14:00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일원

주최 | MG 문경시

주관 | 문경관광진흥공단 문경찾사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문경도자기협동조합

협찬 | 농업중앙회 문경시지부 DGB 대구은행 문경지점

